

월북작가 작품집, 얼마나 나와 있나

20여 작가 70여 작품집 출간...새로운 '한국문학전집'도 기획

지난 7월 19일 정부당국에 의해 단행된 월북작가들에 대한 거의 전면적인 해금조치 이후 이들 작가의 작품집들이 다투어 출간되고 있다.

정부의 공식해금과는 무관하게 이미 이전부터 음성적으로 출판, 판매되던 책들과 함께, 해금 한달 남짓 동안 근 40종의 월북작가 작품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일부 '인기'작가의 경우는 번듯한 개인전집까지 완간돼 있는가 하면, 한편에선 월북작가의 작품을 주목적으로 구성된 새로운 '한국문학전집'의 발간도 시도되고 있다.

책의 형태에서도 해당 작품집의 첫 출간 당시의 판본을 그대로 복원시킨 것을 비롯해, 그것을 저본으로 하여 몇편의 작품을 편집자 임의대로 덧붙인 것, 혹은 전문연구자의 書誌 작업을 거쳐 신뢰할 만한 정보의 면모를 보이는 것 등 매우 다양하다.

한편으로는, '월북'이라는 문학외적인 사실이 자극하는 경박한 호기심을 반영이라도 하듯 벌써부터 중복출판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저작권 시비가 이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 문제는 대부분의 월북작가들에 있어 사망사실의 확인이나 저작권 소재의 확정 등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큰 말쑥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해금 이전에 음성출판된 책 많아

출판계가 월북작가 작품집 간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2년부터로, 이 해 민음사가 「鄭芝溶全集」을 제작했다가 당국의 제지로 출간이 유보됐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던 것이 올 1월 깊은샘출판사의 「鄭芝溶-詩와 散文」에 대해 문공부당국이 납본필증을 교부함으로써 '월북'이 아니라 '남북'이라고 주장되던 鄭芝溶·金起林의 작품집 간행이 공식 허용되고, 이어서 이번의 '7·19전면해금'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조치와 관계없이 그것이 실제로 출판되고 유통됐다는 점에서는 1985년 8월 사계절출판사가 펴낸 洪命憲의 「林巨正」이 최초의 책이 된다. 전9권으로 출간된 「林巨正」은 대학가의 비공식 베스트셀러로 기록될 만큼 많은 화제를 끌었는데, 현재는 절판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민사에서 월북작가 작품집으로 구성

된 각각 10권씩의 '기민근대시선' 및 '기민근대소설선'을 1986년 9월에 펴냈다. 띄어쓰기 이외는 원래의 판본을 그대로 복원시킨 이 기민사본은 특히 판권란에 '비매품·500부 한정판'임을 명시해 이채로운데, 처음엔 연고를 통한 주문판매에 치중하다가 지난해부터 정가를 매겨 일반서점에 내놓고 있다.

또, 슬기출판사가 지난해 8월부터 일련의 '남북작가총서'를 펴내고 있고, 창작과비평사에서 白石과 李庸岳의 전집을 올 7월 이전에 출간하는 등 대체로 주요작가의 주요작품은 이번의 해금조치 전에 이미 다 소개돼 있는 실정이다.

李泰俊은 두 군데서 '전집' 간행

현재까지 어떤 형태로든 작품집이 간행돼 있는 월북작가는 洪命憲, 韓雪野, 李箕永 등 미해금작가를 포함하여 鄭芝溶, 金起林, 白石, 李庸岳, 林和, 吳煥煥, 李燦, 李泰俊, 朴泰遠, 金南天, 安懷南, 玄德, 許俊, 趙明熙, 宋影, 崔明翹, 嚴興燮 등 모두 20여명에 이른다.

이 중 정지용, 김기림, 이태준, 박태원의 작품집이 특히 여러 종이 나와 있어 그들의 문학사적 비중을 짐작케 한다.

정지용의 경우는 「鄭芝溶詩集」(기민사), 「白鹿潭」(기민사), 「鄭芝溶全集」(민음사), 「鄭芝溶-시와 산문」(깊은샘),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깊은샘) 등 5종이 나와 있다. 이 중 「정지용시집」과 「백록담」은 각각 1935년과 46년에 간행된 동명의 작품집 판본을 그대로 복원시킨 것이며, 시와 산문편 두 권으로 구성된 「정지용전집」은 서강대 김학동교수의 세밀한 서지작업을 거친 것으로서 저작권자인 정지용의 아들 정구관씨의 서문이 붙어 있다. 현재로선 정지용문학의 결정본에 가장 근접해 있는 책이라 할 만하다. 「정지용-시와 산문」 및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는 일반독자를 위한 대중판 선집으로 엮어진 책으로서 역시 저작권자가 분명히 표시돼 있는데, 특히 전자의 경우 올 1월 초 판 발행 이후 다섯달 만에 4판을 찍어내는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다.

정지용과 더불어 일제시대 우리시단의 가장 큰 봉우리 중의 하나였던 김기림의 작품집은 현재 3종이 나와 있다. 1936년 자비로 출판됐던 동명의 작품집을 복원한 「기상도」(기민사)를 비롯, 시와 산문 등을 가려뽑은 「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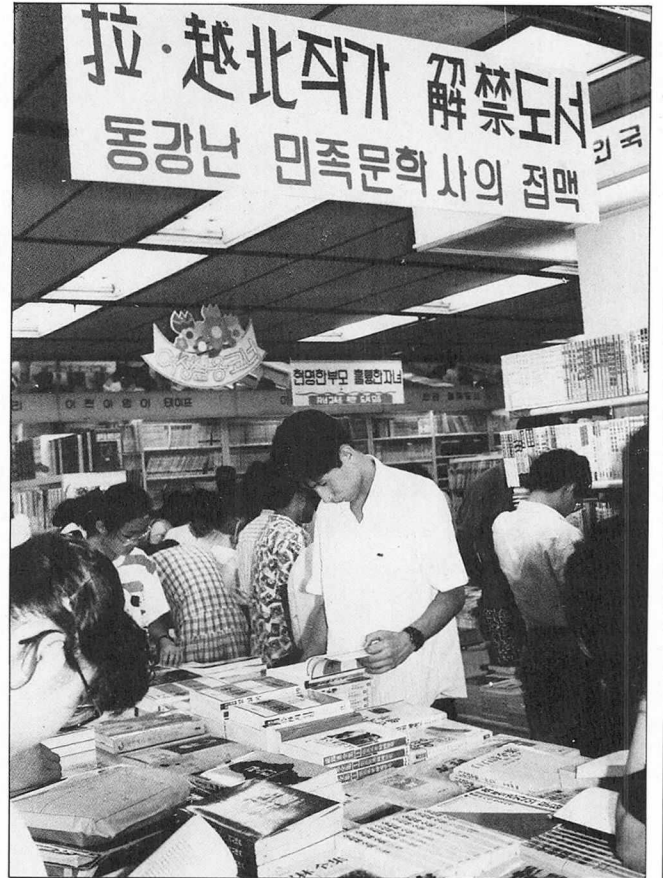
起林選集」(깊은샘) 및 시·시론·문학론·문장론·소설·희곡·수필·문명비평·역사 등 전6권의 「金起林全集」(심설당)이 김학동교수의 편집으로 완간돼 있다.

특유의 '예술문장'으로 식민지사회에서의 패배주의적 인물을 그린 일련의 작품들과, 특히 「文章講話」로 후대의 문학지망생들에게 공과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이태준은 그 영향력의 크기에 걸맞게 가장 많은 작품집이 출간돼 있다.

단행본으로는 장편소설 「花冠」(기민사 및 수문서관)과 「第二의 運命」(수문서관), 그리고 단편집 「福徳房」(수문서관)이 나와 있고, 「李泰俊全集」전18권이 서울출판사에 의해 최근 완간됐다. 깊은샘에서도 「李泰俊全集」을 지난 4월부터 순차적으로 펴내고 있는데, 8월 현재 전15권 중 5권째가 나와 있는 상태이다.

충실한 서지작업으로 '결정판' 나오기도

서울 서민들의 가난한 삶을 즐겨 그림으로써 세태소설, 혹은 풍속소설의 선편을 잡은 것으로 평가되는 박태원의 작품집도 비교적 많이 나와 있는데, 똑같은 판본의 중복출판이 많은 점이 눈에 띈다. 50개의 삽화로 청계천변 서울서민들의 애환을 극명하게 드러낸



지난 7월 19일의 해금조치 이후 월북작가 작품집들이 활발히 출간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K문고의 월북작가 코너.)

「川邊風景」이 기민사와 수문서관에서, 그리고 후대의 작가 최인훈에 의해 소설적 변주를 보이게 되는 「小說家 仇甫氏의 一日」이 기민사, 슬기, 수문서관에서 간행됐다. 일제 때의 이른바 「白白敎 사건」을 다룬 장편 「金銀塔」도 위의 세 출판사에서 간행됐으며, 그밖에 장편 「女人盛裝」이 수문서관에 의해 출판됐다.

한편, 깊은샘에서는 박태원의 차남 박재영 씨와의 저작권 협의를 거쳐 10권 정도의 「박태원전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동안 간행된 '불법'출판물들을 8월중에 회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

'월북'이라기보다는 '在北'작가라는 것이 더 온당한 시인 백석의 작품집은 현재 4권이 나와 있다. 생전에 남긴 유일한 시집 「사슴」이 기민사와 수문서관에서 출간됐고, 7편의 산문을 부록으로 곁들이고 「사슴」에 실리지 않은 작품들을 찾아 보유했던 「白石詩全集」(창작과 비평사)이 시인 李東洵씨 편으로 간행됐다. 김학동교수의 편집으로 올초에 나온 「가즈랑집할머니」(새문사)는 「사슴」편과 「보유」편으로 구성돼 있다.

백석과 함께 북방의 토착적 민족정서를 표현하는 데 남다른 특장을 발휘했던 이윤익의 작품집으로는 「分水嶺」 「낮은 집」 「오랑캐꽃」이 각각 기민사에서 출간됐고, 동향의 후배시

인 柳芻의 발문을 붙인 「李庸岳詩全集」이尹永川교수의 편집으로 최근 창작과비평사에서 간행됐다.

대부분이 옛 판본의 단순한 복원

그밖의 월북작가들은 대개 한두권씩의 작품집만이 나와 있는데, 그 대부분이 옛 판본을 다시 찍어낸 것들이다.

카프의 이론적 맹장으로 월북 후 숙청당한 것으로 알려진 임화는 대표작 「현해탄」(기민사/수문서관)과 함께, 도서출판 세계가 문학평론가 임현영, 김철, 김재용씨의 책임편집으로 준비하고 있는 '한국근대민족문학전집'의 일환으로 펴낸 「林和選集」 첫째권이 나와 있다. 역시 카프의 이론적 지주였던 김남천은 장편소설 「大河」(기민사/수문서관) 및 단편집 「麥」(기민사)이 출간된 상태이고, 1947년 당시 「맥」을 펴냈던 을유문화사가 따로 이 작품집 간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인 오장환과 이찬의 작품집으로 각각 「城壁」(기민사/수문서관)과 「獻詞」(기민사) 및 「焚香」(기민사/수문서관)이 출간됐고, 소설가로는 조명희의 「낙동강」, 현덕의 「남생이」, 허준의 「殘燈」이 각각 수문서관과 슬기에서, 안희남의 「불」이 기민사와 수문서관에서, 그리고 엄홍섭의 「人生沙漠」, 송영의 「女僧」, 최명익의 「張三李四」가 수문서관에서 출판됐다.

미해금작가의 작품집은 홍명희의 「林巨正」(사계절)과 함께 이기영의 「故郷」(기민사)과 「人間條業」(슬기), 그리고 한설야의 「塔」(기민사)이 나와 있다.

그밖에 개인별 작품집이 아닌 합동엔솔로지의 형태로서 간행된 「잊혀진 작가와 작품」(깊은샘), 「해방3년의 소설문학」(세계), 「해방공간의 문학」(돌베개) 등을 통해서도 많은 월북작가의 작품들이 소개되고 있다.

시급한 저작권문제 해결

한편, 이같이 기왕에 출판된 작품집들 말고도 몇몇 출판사들이 월북작가 작품집 출간에 새로이 뛰어들 체비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삼성과 금성 같은 대형출판사들이 일련의 해금작가문학선집을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미 완간된 수문서관의 '제3한국문학' 및 이제 그 첫째권을 펴낸 세계의 '한국근대민족문학전집'과 더불어

이 새로운 목록으로 구성된 '한국문학전집'의 출현을 곧 보게 될 것 같다.

또, 개인별 전집도 비교적 활발히 기획되고 있는데, 풀빛이 「임화전집」을, 사계절이 「이기영전집」을, 깊은샘이 「박노갑전집」을, 그리고 삶과함께 출판사가 「김남천전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의 이같은 해금작가 출판붐에 대해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높다.

우선, 저작권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찍어놓고 보자'는 식의 출판은 곤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예컨대, 저작권 성립의 필수조건인 생존여부 및 사망연도의 확인이 몇몇 작가를 제외하면 거의 불가능하고, 남쪽에 연고자가 없는 경우도 대부분이라서, 법체계에서는 저작권에 관한 특례법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는 견해이다. 변호사 한승헌씨는 "북으로 간 사람들의 저작권에 관한 특례법이라도 만들어 그들의 생사여부에 관계없이 저작권을 민법상 재산상속권자들이 행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월북작가 작품집 출판의 '형식'에 관련된 문제로서 옛 판본의 재현은 그것대로 연구자들의 연구목적에 봉사할 수 있지만, 일반 독자를 위해 오늘의 시각으로 편집되고 해설된 작품집의 간행이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높다. 따라서, 무분별한 전집의 출판은 자제돼야 한다는 것인데, 서울대 김윤식교수는 "현재로는 중요작품들을 추려서 선집을 냄으로써 연구의 기초를 넓히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같은 맥락에서 '월북'이나 '해금'이라는 문외적 사실이 해당작가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기는 일이 하루속히 불식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작가 정한숙씨의 말대로 "전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는 작가·작품들이 단지 규제돼왔다는 이유로 지금 와서 새롭게 기억된다면 그것은 문학사의 복원이 아니라 오히려 문학사의 혼돈을 초래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아울러, 출판계와 국문학계 일각에서는 이번의 해금조치에서 제외된 홍명희 등 5명에 대한 조속한 해금과 함께, 해방 이후 북한에서 발표된 문학작품과 해방이후 한국전쟁까지의 3년 동안에 쓰여진 작품들에 대한 폭넓은 개방도 전향적으로 검토되기를 바라고 있다.

-강철주 기자

■월북작가 작품집 출판현황■

작가	작품집	출판사	비고
정지용	정지용 시집	기민사	전 2 권
	백록담	기민사	
	정지용전집	민음사	
	정지용-시와 산문	깊은샘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리야	깊은샘	
김기림	기상도	기민사	전 6 권
	김기림선집	깊은샘	
	김기림전집	심설당	
이태준	화관	기민사/수문서관	전15권 중 5권 간행
	제 2의 운명	수문서관	
	복덕방	수문서관	
	이태준전집 서음출판사	깊은샘 전18권 완간	
박태원	천변풍경	기민사/수문서관	
	금은담	기민사/슬기/수문서관	
	소설가 구보씨의 1일	기민사/슬기/수문서관	
백 석	여인성장	수문서관	
	사슴	기민사/수문서관*	
	백석시전집	창작과 비평사	
이용악	가즈랑집 할머니	새문사	
	오랑캐꽃	기민사	
	낡은 집	기민사	
임 화	분수령	기민사/수문서관*	
	이용악시전집	창작과 비평사	
	현해탄	기민사/수문서관*	
김남천	현화선집 I	세계	
	대하	기민사/수문서관	
오장환	맥	기민사	
	성벽	기민사/수문서관*	
이 찬	현사	기민사	
	분향	기민사/수문서관*	
안희남	불	기민사/수문서관*	
조명희	낙동강	슬기/수문서관*	
현 덕	남생이	슬기/수문서관*	
엄홍섭	인생사막	수문서관*	
허 준	잔 등	슬기/수문서관*	
송 영	여승	수문서관	
최명익	장삼이사	수문서관	
홍명희	임격정	사계절	전 9 권
	이기영	고향	
한설야	인간수업	슬기	
	탑	기민사	

*표는 다른 작가의 작품집과 합본된 것임.